

韓國女子 저고리 形態의 歷史的 變遷

A Historical Change of the Forms of Korean Women Chogori

目 次

- I 緒 論
 - II 저고리의 起源 및 形態
 - 1. 저고리의 起源
 - 2. 저고리의 形態
 - III 저고리의 變遷
 - IV 저고리의 種類 및 製圖
 - V 結 論
- ▶ 參考文獻

啓明大學 黃 孝 榮
Hyo Yang, Hwang

I 緒 論

衣服에 대한 창의는 野蠻時代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끊임없이 발달되면서 결실되어 온 것으로 입을 수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는 긴 세월과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衣服을 입게 된 것은 體溫調節, 身體의 清潔과 保護, 容姿의 美化와 標識 등에 目的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機械文明의 發達과 現代人의 起動性에 의해서 衣服도 한층 實用的이고 活動的으로 변하게 되었다. 過去 植物性纖維 및 動物性纖維만을 使用하여 衣生活을 하던 것이 半合成纖維, 合成纖維 등이 出現면서부터 갑자기 人類의 衣生活은 多樣化되고 高度로 發達하였다.

過去 우리들의 服飾史를 더듬어 보면, 衣服과 장식물 一切는 모두 각자의 地位에 대한 社會的 表象으로서 각기 달랐고 貴人階級 服飾과 賤人階級 服飾과의 文化的 特質의 相異에 基因한 社會的 表象物로서의 差異를 더욱 크게 하였다. 즉, 貴族階級은 外來文化의 影響을 敏感히 表現하고 賤人階級은 固有文化의 傳統을 默守하였다. 그런고로 民族의 本質의 特徵은 賤人階級の 服飾에 依據치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服飾의 文化的 政治的 영향성을 보려면, 貴人階級の 服飾에 依據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女子 저고리는 服飾의 一部分이지만 過去 數百年 내려오는 동안 變化도 많았고 外國에서 수입한 비단이나 三回裝저고리 같은 것은 貴家宅 女人만이 입었고 常民層에서는 입지 못했기 때문에 貴族과 賤人을 比較하면서 논했고, 現在 高度로 發達된 纖維는 우리 女子 저고리의 材料로 많이 利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本論文에서는 女子 저고리 형태의 變化를 時代的으로 구분해서 그 過程을 製圖로써 考察

하였다.

II 저고리의 起源 및 形態

1. 저고리의 起源

우리 옷이 北方式으로 衣服다운 모양을 갖추게 된 時期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新石器時代의 遺物로 發見된 骨針과 紡錘車 등을 보아서 그 時代에 裁縫法과 紡織法이 發達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北滿洲 松花江一帶를 근거로 했던 우리 民族이 亞寒帶氣候에 適合한 衣服이 必要해서 가랑이가 좁은 窄袖肢體形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加랑이가 들로 나 누어진 통 좁은 바지에 저고리는 좁은 소매에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고름 대신에 띠를 허리에 매어서 저고리 앞을 여미게 된 소위 直領交衽式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고리란 語源은 漢文으로 襦라 하는데, 衣가 저고리를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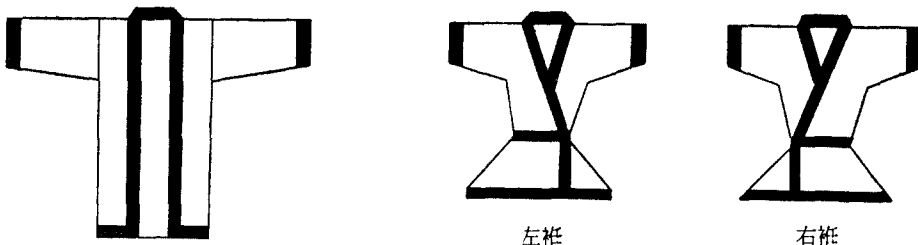
中國의 梁書란 史書에는, 新羅에서는 尉解, 百濟에서는 複衫, 統一新羅時代 興德王 때의 服飾禁制에는 短衣라 했던 것으로 보아 尉解란 것이 우리나라 말의 表音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저고리란 말이 文獻上으론 世宗實錄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蒙古에서는 저고리를 치덕거리라 한다고 한다.

저고리란 말은 高麗末期 즉 蒙古 支配下에 있었던 때부터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저고리의 形態

(1) 三國時代까지의 服飾

三國時代의 服飾은 高句麗時代의 古墳壁畫에서 볼 수 있는데, 滿洲 通溝에 있는 舞踊塚⁽¹⁾ 벽화의 人物圖에 저고리 형태가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窄袖形의 直領交衽式이다. 앞을 왼쪽으로 여민 左衽式이다. 그러나 平壤地方에 있는 古墳壁畫의 저고리는 右衽이 많은 것



舞踊塚: 高句麗 19대 廣開土王의 后妃陵이라는바, 壁畫에는 進饌圖·狩獵圖·舞踊圖·角抵圖 등이 있다.
滿洲 輯安縣 所在.

으로 보아 左衽이 우리의 固有形이었으나 高句麗가 平壤으로 遷都한 후로 中國服飾의 影響을 받아 右衽으로 變遷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깃, 부리, 도련에는 異色 진 넓은襟을 돌렸으며 허리에는 띠를 매었다. 庶民 이하 奴婢階級에서는 固有形 그대로 高麗末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2) 統一新羅時代의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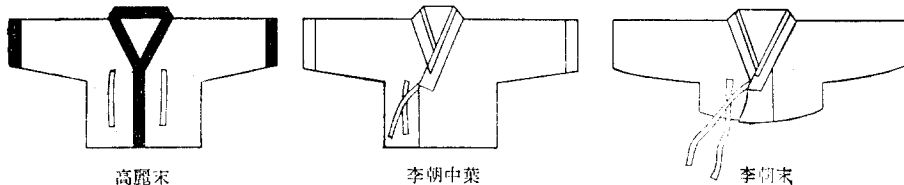
新羅가 富強해짐에 따라 三國統一의 야망을 품고 親唐政策을 썼는데, 제28대 眞德女王은 王錦이라는 비단에 太平頌을 수놓아 唐나라에 보내고, 2년에 金春秋로 하여금 唐나라 衣服을 얻어오게 하여 입었다고 한다. 統一을 完成한 文武王 4년에는 婦女들까지도 中國服飾을 따르도록 嚴令했다고 하는바, 우리 服裝이 中國의 影響으로 寬闊하게 變遷되었고, 漢四郡을 통령서 衣幘이 直接 들어온 일이 있으나, 우리가 請해서 입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비록 이것이 宮中과 特殊有官者層에 限했다 할지라도 우리 服飾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으므로 우리 服飾史上 일대 變遷期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제42대 興德王(826~836) 時代는 新羅文化的 全盛期였으니 時代相에 隨伴해서 服飾도 大端히 사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外來品을 崇尚하고 또 階級的 服飾秩序를 바로잡기 위해서 服飾禁止制度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服飾禁制記錄에 短衣라고 있는바, 오늘날의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서 命名된 것인지, 두루마기에 비해서 짧다고 短衣라 했는지 알 수 없다. 당시의 저고리 형태를 詳考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3) 高麗時代의 服飾

高麗時代의 服飾은 時代 환경에 따라 혼잡성을 면치 못했으나 一般平常服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變化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女人服飾은 重厚한 형태로 發展하고 元에 服屬이 후로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등 蒙古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니, 우리 服飾史上 큰 變遷期라 할 수 있다.

高麗 忠烈王 때부터 100여년 동안 元나라의 支配를 받게 되어 首飾服裝에 이르기까지 元나라의 風習을 따르게 되었다. 특히 女子의 저고리는 길이가 짧아지고, 허리에 매던 띠 대신에 고름을 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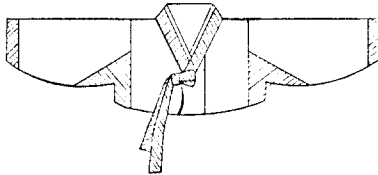
(4) 李朝時代의 服飾

李朝時代의 服飾은 慕華事大主義가 철저하여 明나라 制度를 따르기에 급급하였으며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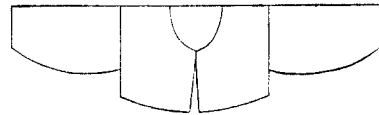
에 混雜性을 가진 高麗制度를 이어받아 극도로 多樣化해서 그야말로 服飾의 飽和 상태를 이루었던 것이다. 기본 服飾 형태도 儒敎禮의 思想에 의한 生活感情에 따라 庶民 賤人層은 별다른 變化가 없었던 것이다.

저고리는 三國後代를 비롯하여 高麗에 이르기까지 길었으나 高麗末葉부터 李朝中葉에 들어와서 짧아졌다. 이는 男女의 衣服을 區別하기 위하여 女子의 긴 저고리를 금한 것이다. 즉, 男子 저고리는 길고 女子 저고리는 짧게 하라는 法令이 있었다. 李朝末葉엔 저고리가 짧아 겨드랑이의 살을 감추기 위하여 넓이 한 자 되는 허리띠를 누워서 양끝에 끈을 달아 겨드랑 밑에 바싹 둘러매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었지만 치마허리가 다 보였다. 길이가 짧다고 하여 동그락저고리라고까지 말하였다. 저고리의 끝동 넓이는 요즈음의 것보다 조금 넓었고 소매 幅과 옷고름의 幅이 매우 좁았다. 집에서 일할 때는 팔배태저고리를 입었고 주로 노랑, 연두, 분홍, 옥색, 저고리를 많이 입었다.

三回裝저고리의 걸막이, 깃, 끝동, 옷고름 등에는 꽃무늬 글씨의 金箔이 찍혀 있었고, 四色에 따라서 깃의 모양이 달랐다. 즉, 老論·少論은 깃을 많이 파고 南人·北人은 적게 파으며 班家에서나 宮에서는 三回裝저고리를 입었고 그 밖에는 입지 못했다.



三回裝저고리



마고자(馬褂子)

○ 三回裝저고리

우리나라 固有服飾의 共通의 特徵의 하나는 저고리, 두루마기, 치마 등의 깃, 부리, 도련에 異色襖을 두른 것이라 하겠는데, 이 襖의 起源은 옷단의 푸서가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目的에서 생긴 制度였으나 後日에는 裝飾的인 目的으로 利用하게 되었던 것이다. 회장저고리의 制度도 이 襖의 遺習일 것이다. 回裝저고리란 말은 近世부터 불리게 된 듯한데, 世宗 實錄에 있는 元敬王后의 明器服中에 “袂隔音이라는 옷이 回裝저고리를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金東旭 教授는 李朝前期服飾研究에서 考說하고 있다.

四禮便覽에는 絹莫伊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變音되어 오늘날의 걸막기가 된 것이다. 옛날에는 貴家宅 女人들만이 입었고 常民層에서는 입지 못했으나 婚禮時 新婦禮服으로 許容했던 것이다. 回裝저고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걸막기가 없는 것을 만회장, 있는 것을 三回裝이라 한다.

○ 마고자(馬褂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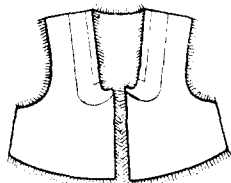
마고자라는 옷은 文獻上으로 發見할 수 없으나, 淸나라 女人들이 겨울에 防寒用으로 저

고리 위에 입었던 馬褂라는 옷의 制度와 名稱語音이 비슷한點으로 보아,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李朝末葉 이후, 特殊階層의 防寒을 겸한 奢侈服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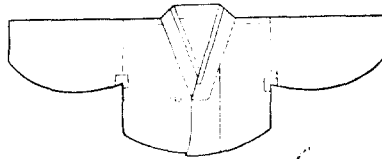
○ 褙子(배자)

李朝時代의 褙子에는 저고리같이 짧은 것과 戰服처럼 길이가 긴 長褙子が 있으나 通稱해서 褙子라 한다. 길이가 짧은 배자의 由來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品 目申에 보이는 褙襠이라는 옷의 遺習이 아닌가 생각된다.

新羅時代의 褙襠은 唐의 服飾의 영향이라 하겠으며 당시에는 女子들만이 입었으나 李朝末葉에 이르러서는 男女가 같이 입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男子는 조끼를 입고 新羅時代와 같이 女子들의 專用物이 된 것 같다.



배자(褙子)



적삼(赤衫)

○ 赤衫

赤衫의 衫은 홑옷이란 뜻인데, 보통 紵麻 등으로 만든 여름 홑저고리와 저고리 밑에 끼 입는 속적삼 등이 있다. 그리고 紗와 같은 얇은 천으로 만든 적삼을 紗赤衫이라 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홑옷에 한해서 衫자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服飾全般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新婦들의 禮服인 圓衫은 넓은 소매에 앞은 뒤보다 짧고 연두색 바탕에 색동소매로 된 것인데, 羅로 지은 것을 羅衫이라 하고, 활옷과 같이 붉은 바탕의 것을 紅長衫이라 했다. 이러한 女人들의 禮服을 일명 大袖衫이라고도 하였다. 宮中語로 赤衫을 汗衫이라고도 한다.

Ⅲ 저고리의 變遷

1. 저고리 치수의 年度別 比較表

2. 저고리 變化에 따른 制度

(A) 1925 年度	(F) 1950 年度	(K) 1965 年度
(B) 1930 "	(G) 1955 "	(L) 1967 "
(C) 1935 "	(H) 1957 "	(M) 1969 "
(D) 1940 "	(I) 1960 "	
(E) 1945 "	(J) 19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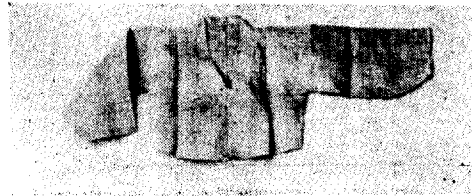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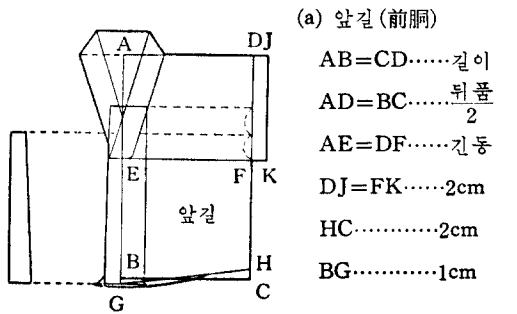
韓國女子 저고리 形態의 歷史的 變遷

<표1> 저고리 치수의 年度別 比較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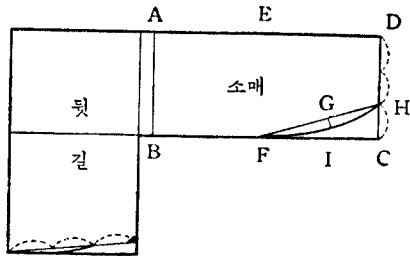
연도별	명칭		저고리 치수																			
	길이	뒤폭	앞폭	화장	긴동	부리	겉선타비	안선타비	선타비	안선타비	고대	깃나비	겉깃길이	안깃길이	고름나비	동정길이	동정나비	소매통	앞치짐	겉알		
1925	40	45	25	65	20	14	상 6 하 7	상 2 하 3	26	19	14	4.5	19	24	5	50	2	20	1	2		
1930	39	46	25	65	20	14	6	7	2	3	26	19	14	4.5	19	24	5	50	2	21	1.5	2
1935	35	50	25	70	20	14	6	6.5	2	3	26	19	14	4	19	24	5	50	2	21	1	2
1940	35	48	25	70	20	14	6	7	2	3	26	19	14	5	19	24	5	50	2	21	1	2
1945	36	48	26	67	20	14	5	5.5	2	3	27	18	14	5	19	24	5	50	2	22	1	2
1950	34	48	25	68	20	14	7	8	2	3	25	18	16	6	19	24	5.5	50	2	24	1.5	3
1955	32	50	27	70	21	14	7	8	3	4	25	18	16.5	6	20	26	5.5	53	2.5	25	2.5	3
1957	32	50	28	70	21	14	8	8.5	3	4	25	18	17	6	20	26	5.5	55	2.5	25	2.5	3
1960	33	51	28	70	21	14	8	9	3	4	25	18	18	6.5	22	27	5.5	57	2.5	25	3	4
1963	33	51	28	70	21.5	14	8	8.5	2	3	26	17	18	6	23	29	6	62	2	25	3	4
1965	32	51	28	70	22	14	6	6.5	1	2	26	15	18	4.5	25	29	6	62	1.5	25	3	4
1967	30	52	28	70	22.5	14	6	6.5	1	2	22	15	18	4.5	25	29	6	62	1.5	25.5	3	4
1969	30	52	28	70	22.5	14	5.5	6	1	2	22	15	18	4	25	29	6	62	1.2	26	4	4

위의 표는 실물 저고리 측정치수와 中高等學校, 家政科教科書, 韓裁冊 등의 표준 치수를 年代別로 綜合해서 參考했음.

A. 저고리 제도 (1925年度)



HG를 연결하여 3等分한 다음 $\frac{1}{3}$ 점을 밖으로 0.3 내어 등글린다.



(b) 뒷길 (後胴)

앞길과 같으나, 앞치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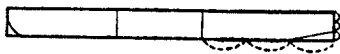
(c) 소매

AB=CD.....긴동
 AD=BC.....화장 - $\frac{\text{뒤폭}}{2}$

$$CH = \frac{CD}{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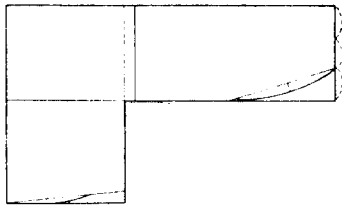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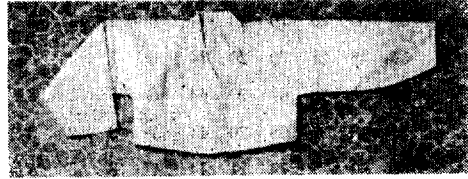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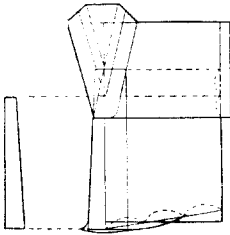
BF=CF

GI.....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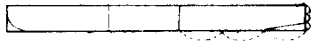


d) 겉깃 + 고대 + 안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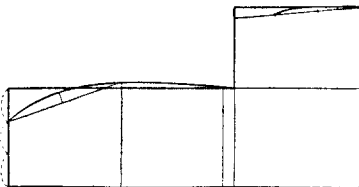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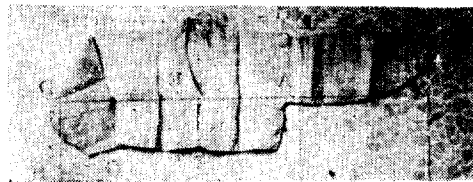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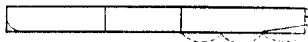
B. 저고리 제도(1930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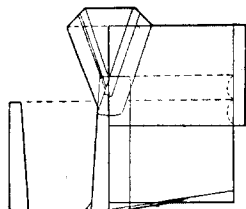
1925 年과 비슷하다. 길이가 길고, 소매통이 좁으며 앞치짐이 아주 적고 고대가 좁으며 깃이 되다.



C. 저고리 제도(1935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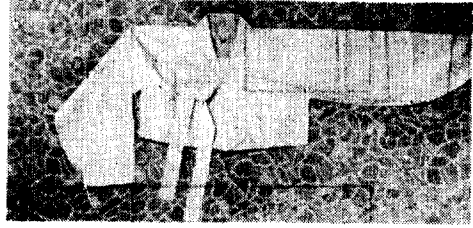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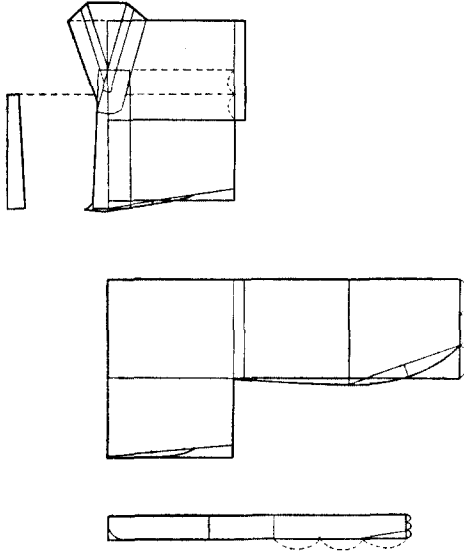


앞과 비슷하나, 소매통이 조금 넓고 길이가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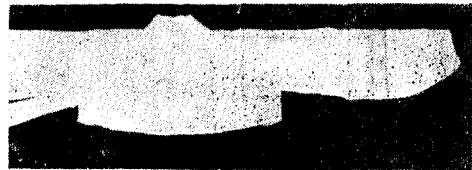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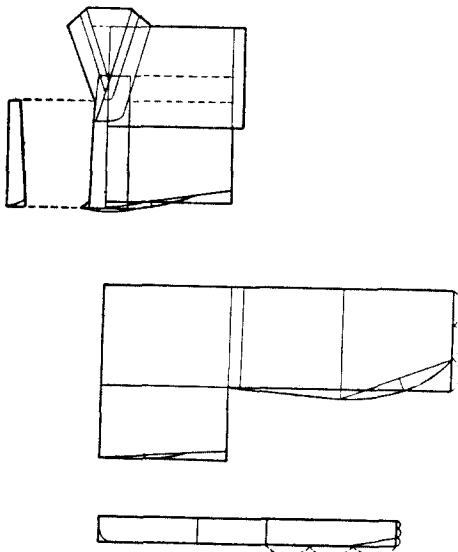
0.3 0.3

D. 저고리 제도(1940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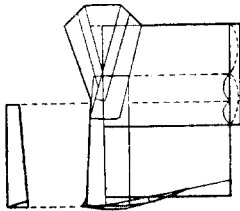
日帝末葉 戰時服裝을 할 때라, 많은 變化는 없으나, 길이가 약간 짧아진 것 같다.

E. 저고리 제도(1945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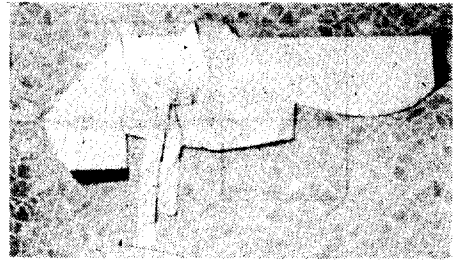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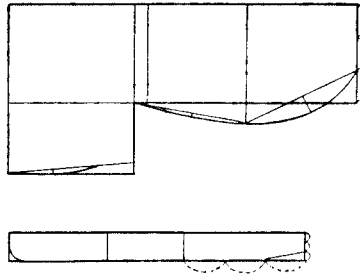


해방 前後에도 별다른 變化는 없었으나, 소매통이 약간 넓어지고, 설이 좁아진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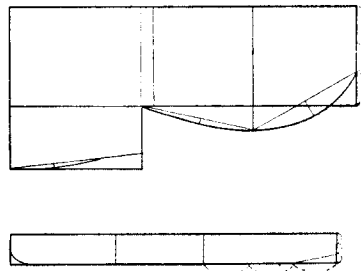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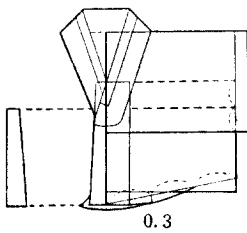
E. 저고리 제도(1950年度)



6.25事變을 前後해서 많은 變化가 있는 것 같음. 소매통, 깃, 설이 많이 넓어졌으며, 앞치짐, 결알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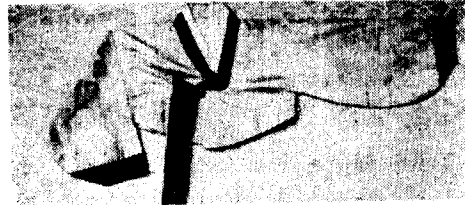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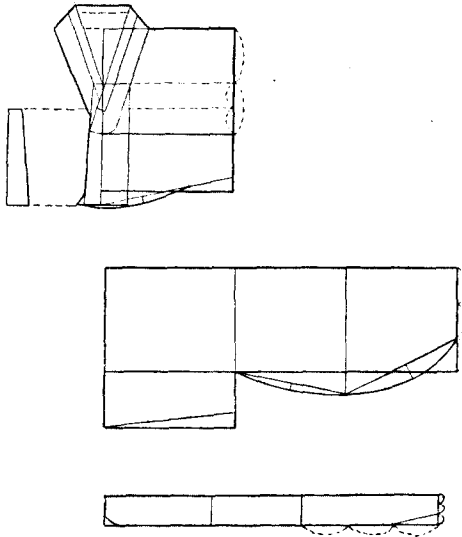


G. 저고리 제도(1955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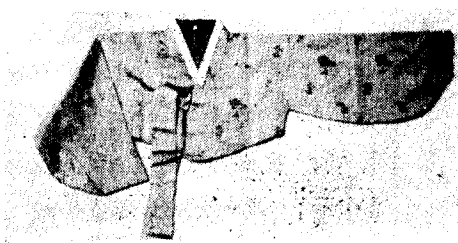
길이는 짧아지고, 설이 아주 넓으며, 동정의 넓이가 2.5cm 나 되었다. 앞치짐이 많고 소매통이 넓으며 고대가 넓다.

H. 저고리 제도(1957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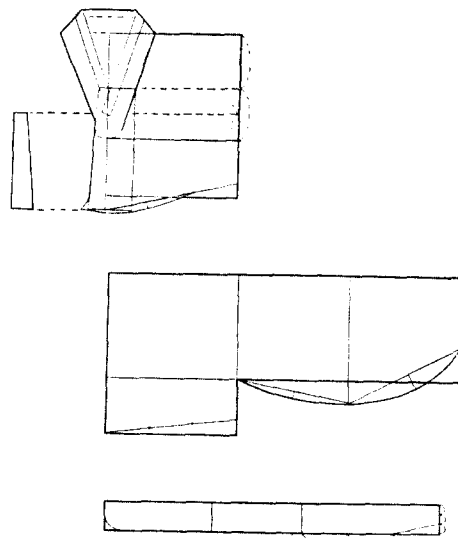


길이, 넓이 등의 형태는 앞과 같으나 긴동에 소매가 2cm 정도, 길에 붙어 있던 것이 直線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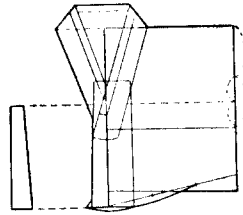
I. 저고리 제도(1960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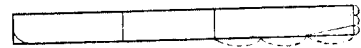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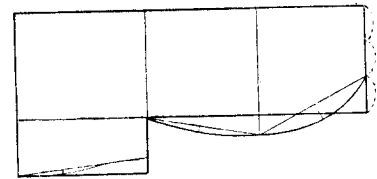
깃이 길어서 아래로 처지고 품을 넓게 하여 등이 들리도록 하였다. 목의 노출 부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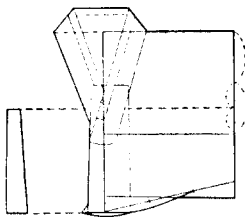
J. 저고리 제도(1963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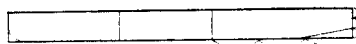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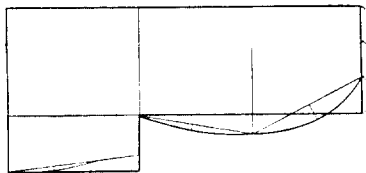
다른 變化는 눈에 띄이지 않으나
동정이 약간 좁아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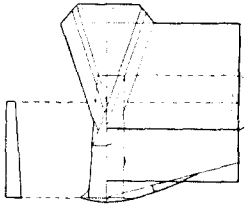
K. 저고리 제도(1965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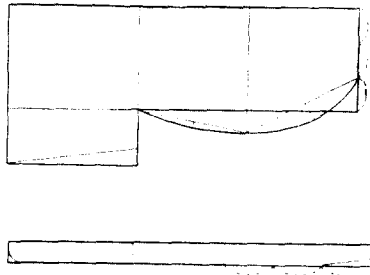
지금부터 저고리의 획기적인 변
화가 온 것 같다. 길이는 짧아지고
깃, 설, 동정이 좁아졌으며, 깃이
길어져서 노출 부분이 많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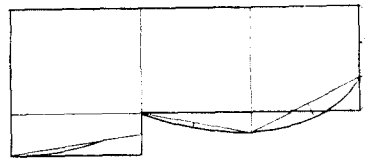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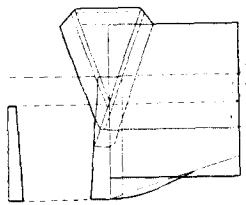
L. 저고리 제도(1967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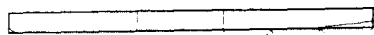
길이는 짧아지고 등이 많이 들리며 깃, 섹, 동정이 많이 좁아졌다. 10년 전 저고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변했다.



M. 저고리 제도(1969年度)



40年前 저고리와 比較도 못하게 많이 바뀌어져서 형태의 變遷을 考察하게 되었다. 過去의 동정 넓이가 2.5cm 였던 것이 1.2cm 로 좁아졌다.



이상과 같이 過去 40 餘年 전과는 달리 韓服도 洋裝과 병행하여 流行이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목둘레를 많이 파기 위하여 넓은 깃과 동정은 차차 가늘어지고 깃이 길게 늦어져 노출 部分이 많아졌으며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치마폭을 줄여 같은 천으로 치마허리를 만들어 짧은 저고리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韓服의 經濟的이고 實用的인 면을 考慮하여 改良 치마저고리가 등장하였으며, 여름 적삼은 소매를 짧게 하여 반소매 적삼으로 입도록 하였고, 춘추로는 박이저고리를 입게 하여 바느질 時間을 절약하고 좀더 추워지면 누비저고리를 만들어 입고, 그 위에 털실로 저고리를 짜 입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주로 平民層의 勞動服, 活動服으로 많이 着用되고 있다.

Ⅳ 저고리의 種類 및 製圖

1. 저고리의 種類

- | | | |
|-------------|-------------|----------------|
| A. 겹저고리(袷襦) | B. 솜저고리(綿襦) | C. 박이저고리 |
| D. 깨끼저고리 | E. 삼희장저고리 | F. 적삼(赤衫), 紗赤衫 |
| G. 마고자(馬褂子) | H. 배자(褙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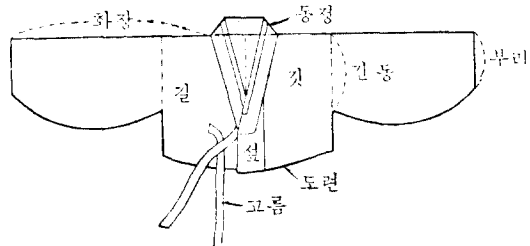
저고리는 그 種類에 따라 바느질法과 감(材料)이 달라진다. 近日에 高度로 發達된 纖維의 出現으로 過去에 하던 바느질法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職業化되고 있다. 職業女性의 進出으로 인한 合理的인 生活樣式이 아닐까 생각한다. 近日에 와선 솜저고리, 깨끼저고리, 적삼 등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것 같으며, 누비저고리가 아름답게 누벼져 눈에 띄일 程度이다. 그것은 生活 簡素化의 一面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A. 겹저고리

1) 名稱

2) 치수재기

胸圍 길이, 화장의 치수로 其他의 部分을 算出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잔 部分이 많아서, 치수를 정확하게 算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時代의 變化에 따라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지고, 선과 소매통이 넓어졌다 좁아지고, 깃이 늘어졌다 되여지기도 한다. 덮어놓고 流行만 따를 것이 아니라 體型에 맞는 流行을 받아들여야 한다.

치수재기에 앞서 주의할 점은 겹저고리에도 겨울用, 春秋用이 있으므로, 구별해서 겨울

韓國女子 저고리 形態의 歷史的 變遷

用은 길이나 폭을 1~2cm 정도 더 잡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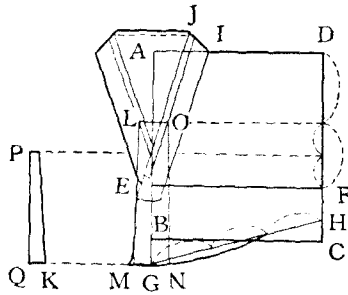
3) 표준치수 (1969 年度)

近日 30대 女人의 저고리를 참고로 했음.

<표 2> 저고리 표준치수

구분	명칭	길이	뒤폭	앞폭	화장	진동	부리	겉선타비	앞선타비	선타비	안선타비	고대	깃	깃길이	안깃길이	동정길이	고름	소매	동정	앞	깃	
대		30	52	28	70	22.5	14	5.5	6	1	2	22	15	18	4	25	29	62	6	26	1.2	4
중		28	50	27	68	22	14	5	5.5	1	2	21	14	18	4	24	28	60	6	25	1.2	3
소		26	48	26	66	21	14	5	5.5	1	2	20	13	18	4	23	27	60	6	24	1.2	3

4) 본뜨기



(a) 앞깃 (前衿)

- AB=CD.....길이
- AD=BC..... $\frac{\text{뒤폭}}{2} \left(\frac{B}{4} + 2 \right)$
- AE=DF.....진동 $\left(\frac{B}{4} \right)$
- BG.....3~4cm
- CH.....3~4cm
- AI.....3~4cm
- IJ.....0.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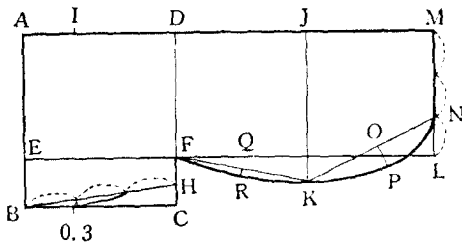
(b) 겉선타

- LM = $\frac{AE}{2} + EG$
- LD.....선타나비 (상)
- MN..... " (하)
- 선타 끝은 0.5 내어 끝게 만든다

(c) 안선타

- PQ..... $\frac{AE}{4} + EG$
- PS.....안선타나비 (상)
- QK..... " (하)

GH를 3等分하여 $\frac{1}{3}$ 되는 점
에서 밖으로 둥글게 끊는다.



(d) 뒷깃 (後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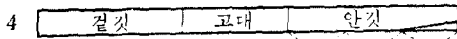
- AB=CD.....길이
- AD=BC..... $\frac{\text{뒤폭}}{2} \left(\frac{B}{4} + 2 \right)$
- AE=DF.....진동 $\left(\frac{B}{4} \right)$
- CH.....3C
- AI..... $\frac{AD}{3}$

BH를 3等分하여 1점에 0.3cm를 밖으로,
둥글게 그린다.

(e) 소매 (袖)

- DM=FL.....화장 $\frac{\text{뒤폭}}{2}$
- DF=LM.....진동
- DJ=JM
- LN..... $\frac{LM}{3}$
- JK.....소매통
- OP.....3cm
- QR.....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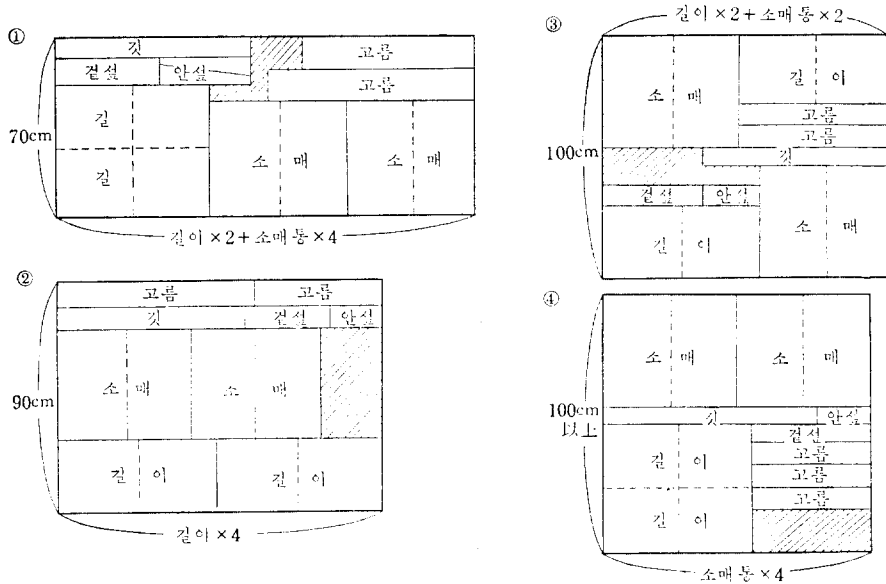
F.R.K.P.N를 自然스럽게 그린다.



(f) 겉깃 + 고대 + 안깃

깃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린다.

5)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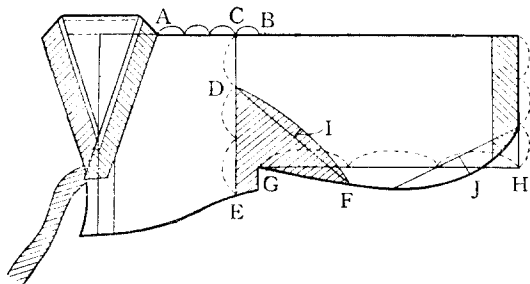


(B) 솜저고리 (C) 박이저고리 (D) 깨끼저고리 (F) 적삼
 위의 (B) (C) (D) (F)는 製圖方法은 같으나 바느질法이 다르다. 삼회장저고리는 다만 회장이 달린다는 것뿐이다.

(E) 三回裝저고리

(I) 본뜨기

길과 소매는 저고리 제도와 같으나 호장이 다름.



$$CB \dots \frac{A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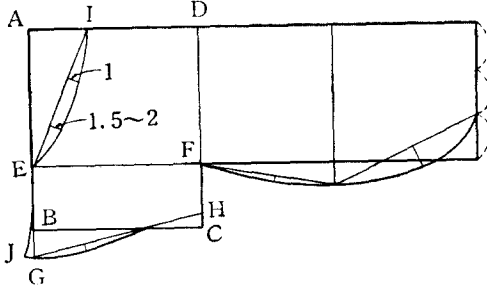
$$CD \dots \frac{DE}{3}$$

$$GF \dots \frac{GH}{3}$$

$$HI \dots \text{끝동} \dots 4\text{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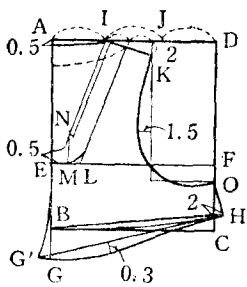
(G) 마고자(馬褂子)

(1) 본뜨기



$AB=CD$저고리 길이+0.5~1cm
 $AD=BC$저고리폭+0.5cm
 IA.....저고리 고대와 같음
 $AE=DF$ 긴동+0.5cm
 JG1~1.5cm
 EJ.....E에서 0.5cm 들어가서 연결함.
 앞뒤 도련은 저고리와 같음

(H) 배자(褂子)



$AB=CD$길이+1
 $AD=BC$ $\frac{\text{귀폭}}{2}-1\left(\frac{B}{4}+3\right)$
 $AE=EF$긴동 $\left(\frac{B}{4}\right)$
 AI $\frac{AD}{3}$
 IJ $\frac{AD}{3}-2$
 JK2
 ML $\frac{IJ}{2}$
 CH3cm
 EM3cm
 BG4~5cm
 GG'15
 EG'를 연결하여 곁게 만들.
 앞뒤 도련은 저고리와 같음.

V 結 論

前술한 바와 같이 服飾의 一部分으로서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女子 저고리에 대하여, 그 變遷過程을 더듬어 보았다. [時代的으로는 三國時代부터 李朝時代에 이르기까지 全般을 살펴보았으며, 그후 즉 世界大戰 이후부터 今日에 이르기까지의 형태 變化를 살펴보았다.

古代衣服에 있어서 그 種類나 형태 등이 單調로왔고 時代의 흐름에 따르는 變遷도 많이 없었다. 色調에 있어서 原色系統을 愛用했으며 階級의 差異가 심하여 色의 區別도 많았다. 貴族中心의 時代였으므로 平民의 衣裳에 한해서만 禁色을 要했다.

中國에서 수입한 비단은 貴族層에서만 使用하였고, 平民層에서는 紗羅 등의 織物이 使用되었으며 全部 自家裁縫을 했다. 형태의 變遷에 있어서도 길고, 허리에 매든 띠가 變하여 고름으로 되기까지의 期間은 高句麗時代에서 高麗末까지의 아주 긴 期間이었으며, 李朝末葉에 와서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近代에 와서는 數次의 大戰과 動亂으로 많은 變化는 없었으나 [最近 2~3年間의 變化는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過去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었다.

世界大戰 後부터 最近까지의 저고리 형태는 實物을 直接 觀察, 측정하여 5년~3년의 간격을 두고 變化된 형태를 사진과 比較하면서 製圖하였다. 그리고, 過去에 發表된 標準치수가 最近 옷의 치수와 많은 差異가 있으므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흥미를 잃을 것 같아, 最近 옷과 비슷한 標準치수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本稿를 쓰게 된 動機가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고리, 삼회장저고리, 마고자, 배자 등을 製圖하여 보았다.

앞으론 高度로 發達된 纖維를 利用하여 우리의 固有의 服裝을 더욱 發展시켜 世界 衣生活界에 그 固有美를 나타내야겠다.

▶ 參考文獻

- (1) 金粉玉, 韓服生活, 修學社, 1963
- (2) 權桂淳, 우리옷의 變遷과 裁縫, 修學社, 1968
- (3) 石宙善, 韓國衣裳의 歷史的 考察, 家政學會誌, 제 4 호
- (4) 柳喜卿, 아름다운 韓服, 女苑社
- (5) 田中薰, 原色世界衣服大圖鑑, 保育社
田中千代,